

W_F_053

젊은 남자로 둔갑한 도체비

2016년 11월 23일, 한림읍 월림리 고정녀씨 댁, 이현정 조사.
고정녀(여, 1939년생, 한림읍 월림리)

[제보자] 이제 병원에 갓젠 헌 할망은 어디 시 뜰네 집이 강 오단에 헤낮이도 젊은, 젊은 남자가 탁 어깨 두드리멍이? 어깨 두두멍.

“삼춘 어디 값우과?” 허멍 허난.

“난 저 귀덕이엔 헌 디 가맨.”

“나영 ?찌 그룹서.”

“경 허주.”

막 경 허멍 ?찌 가넨헌 것이 혀사름인가 나신?라이. 어 차부옐 (불청) 싣거다 주肯 헤도 간 올 만헤신디 원, 차부가 안 나완. 제주 차부 저, 요 서중 그래 와그네, 찰, 시외버스 탕 오젠 헨디. 그 노형산 완 그디도 쪼끔 멀주만은, 할망은 또 춤 경허젠. 경 헨, 원 차분 안 나오곡 어떻헌 일이고 헷인디. 어떤 헤진 철 몰른디. 다 어둑어가고. 혼 다섯 신가 미깡 탈 때난 이때 ㅎ꼼 넘엉이라, 미깡 거저 타고 한 때는, 어디 저, 광령, 광령이엔 헌 디.

[조사자] 애월, 저쪽에예?

[제보자] 애월 우에이, 광령이엔 헨디 그디 질례에 영 드러누웡 시난, 어떤 여자가 가멍.

“아이고, 이거 어떻헌 어른이꽈? 파싹헌디 이디 영 누웠수꽈? 큰일 날 어른이여, 큰일 날 어른이여!”

그땐 정신 난, 눈 턴 보난 질례에 누웠젠품. 겐 질례에 누워지난에.

“아고, 날 살려줍서 날 살려줍서.”

“어딜, 어딜 갈 어른이꽈?”

“난 아맹헌디 가난 택시 불러 주라.”

택시 탕 이젠 귀덕 오젠품?

“택시 불러 주라.”

허난, 택신 불르난 거 아무덴 골으난 갓어렌게. 겐 가난 집 오란 돈도 보겟대

에 셔도 집이 오란 돈 어디 잊인 것도 몰르고, 돈 꿔단 물고 헷인디 그로후엔 할 망 막 아판, 놀렌 굿도 허고이.

[조사자] 굿도 하션마씨? 도체비 때문에?

[제보자] 게 헤낫지. 경 허연이 그 할망 돈 많이 썻어. 넋드리레 간, 저 넋 굿당이엔 헌디 어디 시에 그디 간 넋드렸어. 돈 막 하영 내서 헤낫어. 근디 지금은 그런 거 가 엇는디. 그 삼춘은 어떻 헨 막. 날이 ㅎ꼼 축축헌 날이고 헤렌 헨게. 그 (불청)으로 계속 아팡. 막 허멍 허단, 이 태풍 올 때 또 놈이 집이 문 덮어도렌 허난 문 덮으레 밤이 갓단에, 그 가에당 ㅎ꼼 영 헌 집이엔 허난. 그 가에당(계단)을 발을 잘못 디딘 쟁이라게. 파들락 헹 탁 드러누우난 발 어떻 허연 다천게. 경 헌 것이 한림 저 벵원에영 간, 영 임시 기브스 저 뭐 붕대 감는 거 그런 걸 헨. 혼 일주일 텐 후에도 안 좋아가난 또 다른 벵원에 가난이? 기브스허렌 허연.

[조사자] 아, 기브스허렌 허연.

[제보자] 겐 기브스 일주일 헨, 기, 기브스 일주일 헨 푸난, 또 낫지 안 혀난 안 낫앙 어령 하믄 존넨 헹 가난에, 큰벵원 가랜. 큰일나肯 이 할망 게, 이, ○○벵원 간 수술헤연. 수술헨 지 이제 혼 둘 넘엇어.

[조사자] 게믄 그 도체비 만난 후로 계속 경 몸이 아프고, 다치고.

[제보자] 응 자꾸 아파 이게, 다치곡게, 아파. 다친 모두 이거 멧 번이라. 당신냥으로두 지네 집이서 무시거 높은 디가 선 이런 디 무시거, 영 끝안 앗은 방석 쪽글락헌 것 이 잇느네이? 거 끝안 산네 올라산 허단 또 파들락이 넘어전에 다리도 빼언에 이? 경허고 헤낫인디 요번에도 또 경 하고게. 겐 이제 벵원에 입원헨 엊그제 나도 강 봇인디.

- 핵심어 : 도체비, 둔갑, 젊은 남자, 굿, 넋드림, 축축헌 날, 애월읍 광령리